

2019 년 11 월 25 일

펜실베니아 하원의원 한국전쟁종전 요청



[펜실베니아 하원의원 Madeleine Dean 과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 펜실베니아 지부, 그리고 필라델피아 민주평통 회원들]

펜실베니아 하원의원 드와이트 에반스 (Dwight Evans, PA-03), 매들린 딘 (Madeleine Dean, PA-04), 메리 게이 스캔론 (Mary Gay Scanlon, PA-05) 등 세명의 의원이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요즘, 종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자는 워싱턴의 목소리에 지지를 더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70 년의 한국 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152 는 2019 년 2 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앞두고 로 칸나 (Ro Khanna,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앤디 김 (Andy Kim, 뉴저지 하원의원), 바바라 리 (Barbara Lee,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번 달 펜실베니아에서 새로운 지지자 3 명이 추가 된 것은 펜실베니아 지부 코리아 피스 나우! ([Korea](#)

[Peace Now!](#) – 미국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캠페인) 풀뿌리 운동의 결과이다.

한국전쟁종전 결의안은 현재 하원에 41 명의 공동지지자가 있다.

드와이트 에반스 하원 의원은“결의안이 제시 한 바와 같이 북에 대한 까닭없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 그 지역의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및 동북 안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 구축과 화해를 향해 나아갈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해야합니다. 마지막 전투 후 거의 70 년이 지났고, 이제는 한국 전쟁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Madeleine Dean 국회의원은 말했다.

Data for Progress 와 YouGov 가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치 관계가 있는 미국 유권자의 67%가 북한과의 평화 협정 협상을 지지한다고 한다. 지지율은 초당파적이며 공화당 (7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립 및 기타 (64%)와 민주당 (63%)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려는 비슷한 법안이 2020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개정안으로 2019 년 7 월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반도 전쟁은 70 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장 긴 전쟁이다.” 코리아 피스 나우의 펜실베이니아 지부 공동 회장인 클레어 유 (Claire Yoo)가 말했다. “한반도 8 천만 명의 코리언과 28,500 명의 미군의 생명이 걸려있다. 한국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고, 역사의 옳은편에 선 에반스, 딘, 스칼론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 펜실베니아 지부 회원들과 펜실베니아 하원의원 Mary Gay Scanlon
보좌관 Vandeth Sek]

#####